

사회

전남대 평의원회 '재심' 부활 총장 권한 견제 장치 만든다

2009년 삭제된 조항 삽입 개정키로

전남대학교 평의원회가 총장이 평의원회 의결안을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총장권한 견제 장치를 만들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는 현재 총장이 평의원회 심의 의결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평의원회의 견제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총장의 거부권도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남대 평의원회는 2일 평의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을 총장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심의 절차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재심요청(16조) 조항을 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교수대표(33명)와 직원대표(4명)·주요 보직 처장(2명) 등

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장선출방법, 학칙개정, 예·결산, 대학과 학부 설치, 대학발전계획 심의 등 대학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 기구이다.

문제의 핵심인 '재심요청' 조항은 교수협의회로 운영되던 1987년부터 있었으나 2009년 7월 개정 때 삭제된 것으로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되는 셈이다.

재심요청 조항은 총장이 평의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유서를 붙여 재심을 요청하고, 평의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심요청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예절학당 '탈춤배우기'

2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광주YMCA 여름방학캠프 '하늘천 따지 예절학당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탈춤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잦은 轉職 제한

교과부 교원인사 제도 개선

앞으로 장학관·장학사가 교장·교감으로, 교장·교감이 다시 장학관·장학사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교감이 장학관·장학사가 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무연한을 늘려 학교

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직급(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1회만 허용한다. 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직가는 근무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높인다.

교원이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지속적으로 승진 임용을 제한키로 했다. 징계가 끝나고 이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지나도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강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수박 15일 첫 출하

올 3000여トン 판매 예상

광주지역에 올여름 유독 많은 비가 내리는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등산 수박의 작황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산 수박은 오는 15일 정상 출하된다.

'무등산 수박 생산자조합'은 오는 15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공동집하장에서 첫 출하식을 열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기상여건 악화에도 올해 수확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0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가격은 8kg짜리가 2만원으로 16kg까지는 1kg에 1만 원씩 추가되고 17kg 이상부터는 1kg에 2만원씩 추가해 24kg짜리 한 통은 26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는 오는 27일부터 이를 동안 조합과 함께 '제4회 수박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태풍 '무이파' 북상 중

호남 8일 간접 영향권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가 북상하면서 광주·전남도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가 이날 오후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7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무이파는 오는 6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8일에는 광주·전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 특히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42분
해진 19시 35분

달밤 09시 25분
달진 21시 27분

소나기

낮에 한두차례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 주 구름많고한때비	24/33°C
목 포 구름많음	23/31°C
여 수 구름많고한때비	23/29°C
나 주 구름많고한때비	24/33°C
완 도 구름많음	24/31°C
구 래 구름많고한때비	24/33°C
강 전 구름많고한때비	25/31°C
해 남 구름많고한때비	25/31°C
장 풍 구름많고한때비	25/31°C
순 천 구름많고한때비	24/32°C
영 광 구름많고한때비	23/31°C
전 도 구름많고한때비	25/32°C
전 주 구름많고한때비	24/33°C
군 산 구름많고한때비	23/30°C
남 원 구름많고한때비	23/33°C
흑 산 도 구름많음	23/29°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0.5m	0.5~1.0m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0.5m	0.5~1.0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비다	동~남동	0.5~1.0m	0.5~1.5m	목포	04:35 09:44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1.5m	1.0~2.0m		16:56 21:59

◇주간날씨

날 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씨	25/32	24/32	25/32	25/30	25/30	25/3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민원서류 공짜로 배달해 줍니다"

동구청, 이달부터 거동불편인 대상

광주시 동구는 "이달부터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발급을 신청하면 긴급 민원은 신청 후 4시간 이내, 보통 민원은 다음 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의 집에 배달해준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주소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되며, 담당 공무원의 본인 신청·위임여부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픁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 5가지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밀라·공장의 회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 강판판이 더러워지지않는다.
- 반영구적이다.
-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빼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Coleman

* snow peak

KOVEA

SUUNTO

DANA

PETZL

CAMPINE

VASQUE

ASOLO

cooc

LLOWA

Timberline